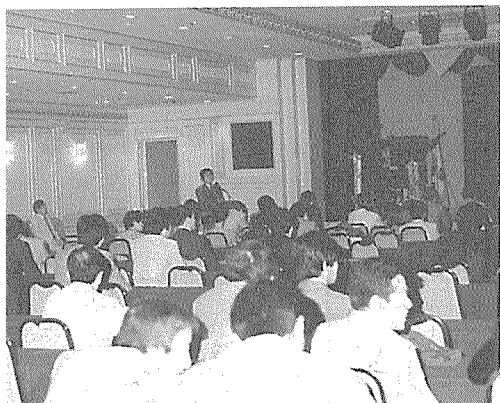


보건담당자 의식 고양에 중요한 역할

'89. 제 1차 보건요원교육·건협과의 유대강화에도 좋은 계기



健協은 '89년도 제1차 보건요원교육을 지난 6월 16일부터 1박2일간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가졌다.

'89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지소를 비롯한 각지의 보건담당자와 건협 사업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일선보건담당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 방역계장, 실무자, 시·군 예방의약계장, 건협 시도지부 사업과장을 비롯해 보건사회부 관계관, 인천시보사국 관계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관영 건협 사무총장은 『국민의 보건의식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대 국민 계몽활동이 가

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보건담당자들의 보건의식 함양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모임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열띤 토의를 전개하여 좋은 전략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봉기 인천시 보사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에 있어서 일선 보건 담당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부의 보건정책사업추진 방향, 건강검진의 중요성, 향후 기생충 관리 대책 등의 주제를 가지고 보건사회부 오대규 보건교육과장, 서울의대 김상인 교수, 서울의대 채종일 교수가 각각 강의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보건요원교육은 보건담당자의 의식 고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건협과의 유대강화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에 좋은계기가 되었다. 이와같은 교육은 오는 9월에 2차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 보건요원교육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 실시되어 전국의 일선보건담당자 전원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9년도 농협공제계약자 건강검사

총 3만 8천명 검사



健協 각 시도지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외)가 농협 공제계약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오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공제계약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도 및 계몽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3만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검사종목은 건강생활에 있어 필수 검사인 20여종의 임상검사를 통해 빈

혈, 신장질환,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동맥경화, 담석, 황달, 폐질환, 자궁암, 원발성 간암 등을 검사해내게 된다.

健協은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 검진 차량을 동원, 읍·면 단위까지 순회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외에 기생충 및 성인병 예방 교육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결과는 개인별로 우편으로 통보하며, 검사종료 후 건강진단 결과는 각 시도별 보고서로 작성되어 국민건강실태 파악을 비롯한 각종 역학 조사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해평국교, 선산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60년부터 78년 4월까지 경북도정보건과에 근무하다가 본회 경북지부 사업과장으로 입사했다.

○…그후 경북지부 서무과장을 역임한 그는, 재직동안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건강검진사업을 정착시키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84년 대구지부 설립 당시에도 많은 공을 세운 바 있다.

김 보섭 경북지부 서무과장 정년퇴임

○…健協 경북지부 김보섭 서무과장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6월 29일 홍보관에서 있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과장의 가족친지를 비롯해 서울지부 서기홍 사무국장, 경북지부 이순사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7월 1일자로 퇴임하게 되는 김과장은 52년 대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또한 그는 평소, 자신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완수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훌륭한 상관으로서 인정받아 왔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건협이 국민건강증진의 기수로 자립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퇴임 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송사에 답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 3녀

전산화도입에 따른 연구 완료

- 화랑대 연구소 유근오박사팀

健協은 전산화 도입에 따른 1차 연구를 마치고 지난 6월 27일에 각 부실장과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결과 보고 및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project연구에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유근오 박사팀이 참가했다.

7월 공개강좌, “당뇨질환”

- 7월 25일, 유형준 박사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7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홍보관에서 갖는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당뇨질환”으로, 국립의료원의 당뇨병 전문의인 유형준 박사가 강의한다.

독자와 함께하는 잡지가 진정한 대중계몽지

'89년도 제 1차 홍보자문 및 편집전문위원회



健協은 '89년도 제1차 홍보자문 및 편집전문위원회를 지난 6월 27일 오전 11

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의 홍보활동을 평가·반성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홍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월간 '건강소식'의 편집방향과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되었던 본회의 각종 홍보계몽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국민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새로운 홍보활동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 건강소식이 보다 독자와 함께 하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독자의 의견을 들어볼 것도 제안되었다.

금연 캠페인 참가

스포츠서울주최·건협 후원



健協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서울이 지난 6월 23일부터 실시하는 "금연 캠페인"에 후원단체로 참가했다.

건협 외에 보건사회부·한국소비자연맹·한국금연운동협의회·서울위생병원의 후원으로 전개되는 이 캠페인 행사는 앞으로 연중 시리즈로 기획·보도되는 한편, 가두 캠페인 등도 벌일 계획이다.